

한화종합화학, 정보소재 집중육성

2010년까지 1000억원 투자 FCCL 확장 ... 광학필름 개발 550억원 투입

한화종합화학이 2010년까지 정보소재·광학소재 사업분야에 총 2000억원을 투자한다.

한화종합화학은 바닥재, 창호, 자동차부품 등 기존사업과 함께 IT용 신소재 사업을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키워 정보소재, 광학소재 사업부문 매출을 2010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3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
한화종합화학은 휴대폰, 디지털카메라, LCD 분야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(FPCB) 소재 FCCL(동박적층필름) 생산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.

FCCL은 한화종합화학이 2002년 7월부터는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2003년 충북 부강공장에 월 20만㎡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, 2006년까지 2차 증설을 통해 월 60만㎡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3층 FCCL과 2층 FCCL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.

한화종합화학은 FCCL 부문에 2007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하고 2006년 말까지 2층 FCCL 월 6만㎡, 3층 FCCL 월 60만㎡의 생산능력을 갖추 계획이다.

3차 증설시점인 2007년 말에는 2층 FCCL 월 12만㎡, 3층 FCCL은 총 생산능력 80만㎡를 보유하게 돼 일본산 수입물량 2000억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한화종합화학은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인 유기EL에 사용되는 ITO 글라스 생산에도 201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한다.

또 2차전지의 분리막인 Separator 필름 개발과 생산에 250억원, 차세대 광학용 기능성 필름 개발에 5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18>